

지역 소식통

부안군,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대동반마당 성료

부안군은 10일 부안스포츠타크 야외무대에서 부안군 18개 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김상곤) 주관으로 화합과 농업인, 군수 국회의원, 군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제22회 부안농업인 대동반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고고장구와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한해 농사를

감사하고 다음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추수감사제, 우수농업인 표창 기념식, 전통놀이 체육행사, 농민들의 장기 뽀내기, 문화공연 등 화합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행사에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팔도의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국 농민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곤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 4개 지구 추진

부안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부안읍 동중지구, 변산면 공항지구, 상서면 우덕지구, 위도면 정금지구(1,337필지, 59만513㎡)를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국책사업이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 주며, 토지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을 예산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민중심, 으뜸정읍’ 만들기 집결

이학수 시장, 민생경제 회복·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6개 시정목표 제시

이학수 시장이 10일 2024년도 예산안을 정읍시의회에 설명하는 시정 연설에서 "균선 용기로 주저하지 않고, '시민중심, 으뜸정읍'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내년도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다.

시정 연설에서 이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민생경제를 살리고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힘썼다"면서 "내년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추세에 전망 또한 밝지 않지만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크게 6개 목표를 토대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제시한 목표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 △희망으로 미소짓는 농생명의 첨단 산업도시 조성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사람 중심 도시기반 확충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등이다. 이 시장은 주요 시정운영 방향과 관련,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밝혔다. 특히 민생경제 살리기와 동반성장

선양 사업과 세계화에 힘써 시민이 행복하고 역사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정읍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내년도에도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읍사랑상품권을 800억원 발행하고, 정읍형 공공배달망 위메프로에 2억 9000만원을 투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시책을 추진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중국 조장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체결

경제무역·문화·관광·교육 등 분야별 교류 협력 추진

고창군이 중국 산둥성 조장시와 첫 번째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11일 중국 산둥성 조장시를 방문해 적군(지이쥘, zhaijun) 조장시장과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했다.

고창군과 조장시 양 도시는 앞으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협약내용으로는 경제무역, 문화, 관광, 교육, 농업,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번영을 추진하고 양도시의 정기적 연락을 유지하고 공동관심사에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창군과 조장시는 2005년 우호교류

협약서 체결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코로나19이후 교류가 주춤하던 당시 구호물품 전달 및 관내 중고등 학교학생 중심의 비대면 '청소년 외교관 운영' 등의 교류를 이어왔다.

또한, 이번 제5회 고창모양성제에 축하사절단이 방문해 고창군민과 축제장에서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과 조장시는 유사한 점이 많아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교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고창군은 세계 주요 도시와 교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도시가 서로 배울점이 많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노형수 고창부군수, 합동평가 등 상황 점검회의 주재

노형수 고창부군수가 지난 9일 2023년 실적 합동평가 부진지표 및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고창군 소관 합동평가 정량지표 중 부진지표 17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또 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부서별 군정 주요사업 110여건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시 예로사

항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실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다짐했다.

노형수 고창 부군수는 "연말까지 합동평가 지표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노력하고 2024년 공모사업 준비 철저,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현황 점검 등 누수없는 업무 추진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장애물 없는 관광지 공모 2곳 선정

동호해수욕장·복분자유원지... 2024년 열린관광지 사업 신규 대상지

동호해수욕장과 복분자유원지 등 전북 고창군의 대표 관광지 2곳이 2024년 열린관광지 사업 신규 대상지에 선정됐다.

고창군 동호해수욕장(동호국민여가캠핑장), 복분자유원지(고창국민여가캠핑장)에 총 10억원(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BF(Banir Free) 전문가들의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시는 지난 9일 2024년 열린관광지 신규 대상지로 12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3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고창군 동호해수욕장(동호국민여가캠핑장), 복분자유원지(고창국민여가캠핑장)에 총 10억원(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BF(Banir Free) 전문가들의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관광지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체험 콘텐츠를 확충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물리적 시설개선 뿐 아니라 관광활동들을 위한 체험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정보 서비스 등 무장애 관광을 위한 제반사항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500여명 유치 계획

정읍시는 농촌 인건비 상승과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대 유치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248명(MOL제결 55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87명, 국내체류자 외국인 6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 중인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지역 내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수요조사를 실

시한 결과 138농가들이 54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시는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회의를 통해 최종 배정인원이 확정된 뒤 내년도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500명 이상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E-8,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용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2024년도 시급 9860원)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농특산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격 판매

16일까지 강남점 판매행사

17일부터 본점 행사 진행

고창군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열고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행사는 오는 16일까지이며, 17일부터 23일까지는 본점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고창군 해리농협 천일염가공사업소의 탈수천일염, 천만금고운소금, 봉후추그라인더와 고창농협 고풍가공사업소 고풍가루가 판매되고 있다.

김장철을 맞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고창 천일염과 고풍가루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은 신세계백화점과 협업해 우수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주)고창황토배기유봉에서 수박, 9월에는 고창황토배기정청고구미연합에서 고구미와 선운산농협에서 뽕문을 판매하여 큰



성과를 거뒀다. 고창군은 신세계몰(온라인)에서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12월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전국 최초의 유기농 지주식 김과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풍천장어를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의 농특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농특산물로 인정받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고창 농특산물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